

영유아도 티켓 사야 입장 ... 파리올림픽 규정에 부모들 반발

올여름 영유아 자녀와 함께 프랑스 파리 올림픽 경기를 보려면 티켓을 별도로 사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부모들이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림픽 규정은 "전 연령대의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관중은 유효한 티켓이 있어야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유아 동반시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 사진-EPA연합뉴스

알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며 "지금은 티켓이 매진돼 어찌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모든 사람이 개별 티켓을 구매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직위는 "우리는 만 4세 미만의 어린이를 경기장에 데려오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며 "스포츠 경기장의 환경이 어린이의 복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 사는 B씨는 아내가 올림픽 개막 전인 5월에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그는 아내 가족과 함께 카약과 비치발리볼 경기를 보려고 지난해 이미 3천 유로를 들여 티켓을 사왔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경기장에 가려면) 개별 좌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규정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청원 플랫폼(Change.org)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현재 170명가량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조직위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와 같은 정책을 내놨다가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밀려 정책을 변경했다.

이강인 "진심 어린 반성", 손흥민 "손가락 얘기는 이제 그만"

아시안컵 탁구 게이트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가 사과했다.

2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강인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실망시켜 드려 너무 죄송하다"라며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큰 도움이 됐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손흥민은 이강인을 감쌌다.



▲ 이강인이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흥민은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강인이 용기 있는 자세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 마음을 잘 받아들였다. 푹푹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 같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손가락 상태에 대한 질문에 "손가락 기사는 이제 안 써주셔도 될 것 같다. 소속팀 감독님도 내가 축구선수다 보니 손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해 취재진을 웃게 했다.

한편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겼다. 4차전은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2028년 LA올림픽에 골프 혼성 단체전 추가될 듯



▲ 지난해 12월 열린 혼성 골프 대회 그랜드 슬론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리디아 고(왼쪽)와 제이슨 데이(오른쪽)를 함께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 골프 종목에 혼성 단체전이 추가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LA올림픽에 골프 혼성 단체전을 추가하는 것은 확정 단계"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4월 11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주간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올림픽 골프 경기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눠 개인전만 진행하며, 각 60명이 나흘간 72홀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쳐 메달 수상자를 가린다.

혼성 단체전이 추가된다면 남자 개인전과 여자 개인전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개인전 스코어를 종합해 단체전 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단체전을 치르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혼성 단체전은 이를 경기로 펼쳐지며,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의 정상급 선수들이 올림픽 다음주에 열리는 PGA 투어 대회(윈덤 챔피언십)에서 경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매체는 내다봤다.

한편 LA올림픽 골프 경기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특급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진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Home Remodeling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